

Seoul Air Show

첨단 방위산업의 격전장 '서울 국제에어쇼 2005' 개최

전 세계 최첨단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술의 현주소를 기능할 '서울 국제에어쇼 2005'가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시팀 |

전 세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축제인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05' (약칭 서울 국제에어쇼 2005)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AIA),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최로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서울 국제에어쇼 2005'는 명실상부한 국제 에어쇼로서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생산제품의 수출기회 확대는 물론 선진 해외업체와의 기술·정보교류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격년으로 개최되어 왔다.

유럽의 전통 있는 '파리에어쇼'나 '판보로에어쇼'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 항공우주 및 방산전시회로 성장하고 있는 '서울 국제에어쇼 2005'는 풍성한 행사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행사 개최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국제에어쇼 2005'의 예상 규모는 30개국 200개 업체가 참가하여 실내전시 720부스, 실외 항공우주 및 방산장비 전

시 100여점, 살레 30동의 전시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 관람객 3만 여명을 포함해 약 30만 명의 일반인이 관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즈니스 위주의 운영에 중점

서울 국제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각 군과 국·내외 참가 업체들간의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참가자 및 비즈니스 위주의 행사운영·기획, 국제적인 수준의 전시시설 구비, 프레젠테이션 운영,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행사기간 중 18일부터 21일까지는 전문관람객의 날(Business Day)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은 일반관람객의 날(Public Day)로 철저히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전시참가자들에게는 비즈니스 활동을 보장하고, 일반관람객에게는 다채롭고 재미있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 국제에어쇼 2005'의 주요 공식행사는 개막일 전날인

■ 서울 국제에어쇼 규모 비교(2005년 6월 23일 기준)

구분		1998	2001	2003	2005(예상)
참가국		17개국	16개국	20개국	30개국
참가업체	국 내	41개	58개	64개	100개
	국 외	114개	117개	109개	200개
	계	155개	175개	173개	300개
부 스	국 내	253부스	242부스	286부스	-
	국 외	265부스	382부스	267부스	-
	계	518부스	624부스	553부스	720부스
살 레	국 내	10동	10동	8동	-
	국 외	12동	15동	3동	-
	계	22동	25동	11동	30동
관 랑 객		22만명	20만5천명	20만명	30만명
전 문 관 랑 객		2만명	2만5천명	3만명	3만명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날은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행사계획의 발표 및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행사장 내 프레젠테이션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후에는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내외 500여명의 VIP들을 초청하여 환영리셉션이 열린다.

행사 당일인 18일에는 개막식, T-50/F-15K 명명식, 시범 및 곡예비행, 테이프 커팅 등의 공식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초청 VIP와 참가업체 임원들간의 골프토너먼트가 20일 남성대CC에서 진행된다.

한편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항공우주 심포지엄'이 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고, 10월 19일에는 항공우주 무기체계의 신기술 소개 및 정보교환을 위한 '무기체계 세미나'가, 21일에는 다가오는 미래에 주력 무기체제로 각광받을 무인항공기/차량/함정과 관련한 'UVS 세미나'가 각각 행사장 세미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T-50 고등훈련기, F-15K 차세대 전투기 공개

이번 행사의 개막식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뿐만 아니라 미 보잉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군에 납품하기로 되어있는 F-15K 전투기가 최초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명명식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 국제에어쇼 2005'를 기점으로 공군에 납품이 시작되는 T-50과 F-15K 각각의 초도 1호기들은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 능력과 공군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요 무기체계로써 그 의미를 가진다.

행사기간 중에는 국내·외 항공우주 및 방산업체들의 최신 지상무기체계가 부스 밖에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또한 T-50, F-15K, KF-16, KT-1과 같은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항공기와, 미군의 F-16, F-18, A-10, F-117, B-1, B-2 등 첨단 항공기들의 시범비행을 포함해 공군 최고의 파일럿으로 구성된 블랙이글 곡예비행팀의 환상적인 비행이 성남 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운영본부에서는 Public Day(일반 관람일)기간 동안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열기구 탑승 체험, 공군 군악대 및 의장대 시범 등 시민 참여의 다채로운 행사와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국제에어쇼 홈페이지: www.seoulairshow.com

■ 입장권

구분	항목		현장판매(원)	예매(원)	비고
Business Day (10.18~21)	보통권	성인	20,000	18,000	만 18세 이상
		단체권	16,000	16,000	내국인 20인 이상/외국인 10인 이상
Public Day (10.22~23)	보통권	성인	7,000	6,000	만 18세 이상
		학생	5,000	4,000	중/고등학생
		어린이	4,000	3,000	만 4세 ~ 초등학생
	단체권	성인	6,000	6,000	내국인 30인 이상/외국인 10인 이상
		학생	4,000	4,000	30인 이상 중/고등학생
		어린이	3,000	3,000	30인 이상 유치원/초등학생